이뤄진 꿈 계속 꾸기

(요1:43-51)

43.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44.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새다 사람이라
45.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46.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47.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48.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49.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5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이뤄진 꿈 계속 꾸기>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이뤄진 꿈 계속 꾸기'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제가 독일에 유학을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통상적으로 괴팅겐 대학에 유학을 온 모든 외국인학생들은 미국의 토플 시험처럼, 그 대학에서 운영하는 어학코스를 들어가서 그곳에서 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그 시험의 목적은 독일의 대학 강의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독일어를 갖추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라도 그 시험이 통과되어야 비로소 대학 강의를 들어갈 수 있고, 정식으로 코스를 밟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갑자기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괴팅겐 대학에 가보니까 그 어학코스에 들어가는 것도 시험을 보는 겁니다.
여러 군데 지원서를 냈다가 괴팅겐 대학에서 입학허가서가 와서 갔는데, 어떤 분이 유학을 제안하는 바람에 갑자기 가게 되고, 독일어를 독일문화원에서 하는 식으로 공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갔습니다.
그냥 고등학교 때 배우고 신학교에서 독어신학강독이라는 과목을 여러 학기 수강을 하고 있던 터에 독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서 행정절차를 밟아 가는데,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는 독일어도 못 알아 듣는 상태였어요, 누구랑 독일어로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reading만 하다가 갔으니까.

그러니 큰일 났지요, 어학코스에 들어가려면 listening 시험도 봐야 되고, speaking 시험도 봐야 한다는데, 이름이 뭐냐고 묻는 말도 못 알아들을 정도였으니 어학코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당연지사인데, 어학코스에 못 들어가면 어디에 가서 무얼 하겠습니까?
당장 큰일이지요.
그래서 책임자를 찾아가서 대학 때 독어신학강독 성적들을 들고, 원래는 독일문화원에서 I, II, III코스 이렇게 공부한 증명서를 보여야 되는데 그걸 안 했으니까, 독어신학강독 성적을 들이대면서 어학코스 시험을 면제해줄 수 없겠느냐고 아무리 부탁을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 2, 30분을 싱강이를 했습니다, 좀 해 달라, 독일어 성적을 인정해주면 어차피 어학코스에 들어가서 독일어 공부를 할 텐데 왜 어학코스 시험을 또 봐야 되느냐고.
한~참 하다가 어느 순간, 그 책임자가 아주머니였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딱 깨달아지는데, 어학코스 시험은 이미 면제를 해주었던 것이에요, 무시험으로 입학하도록.
그런데 그분은 내가 자꾸 허락해달라고 하니까 어학코스를 마치고 대학에서 강의를 듣기 위한 독일어 시험을 면제해서 곧바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으로 알고 계속 안 된다고

한 것이었고, 나는 그 안 된다는 말만 알아듣고는 어학코스 입학이 안 된다는 줄로 알고 계속 씨름을 했던 겁니다.
이미 초장에 허락을 한 것이었어요.
내가 성적을 보여주고 어학코스에 들어가면 안 되겠느냐고 말을 할 때, '아, 그건 그렇게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독일어 통과 시험은 꼭 치러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건데, 나는 어학코스 입학도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계속 싱강이를 했던 겁니다, 그 알량한 독일어실력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꿈을 꿀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예를 들어 5년 뒤에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 좋겠다, 내가 10년 뒤에는 저런 외제차를 타면 좋겠다, 다 꿈을 꿉니다.
우리 아이가 내년에 고3이 되는데 잘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면 좋겠다.
그 다양한 모든 꿈의 궁극적인 알맹이는 '좋겠다'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꿈을 꾸는데 궁극적으로는 '좋음'을 꿈꾸는 겁니다.
좋기를 바라고 꿈꾸는 거예요, 그걸 이루면 좋겠고, 저걸 이루면 좋겠고, ~ 하면 좋겠고, 좋겠고… '좋겠고'를 꿈꾸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사업이 잘 됐으면…'을 들으시는 게 아니라, 결과인 '좋겠다'는 말에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되는 것 없어도 '좋음'을 아예 이 자리에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꿈꿉니다,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을 들어가면 좋겠다는 꿈을 꾸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좋음을 꿈꾸고 있구나, 그러면 자식이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좋아라!' 그게 바로 복음이요, 기쁨의 소리라는 겁니다.
'제가 사업을 잘해서 재벌처럼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주님! 재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하면 '재벌 안 되어도 재벌 되었으면 좋겠다고 꿈꾸고 있는 좋음이 이미 이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하면서도, 그 기쁨의 소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주님께, '돈 벌면 좋겠습니다,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자식이 이래 되면 좋겠습니다, 저래 되면 좋겠습니다.'
'좋겠음'이라는 꿈의 궁극적인 목표가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돈 없습니까?
그래서 돈 있으면 좋겠다고 꿈꾸시잖아요?
주님을 믿으시면 그 꿈을 계속 꿀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돈이 있어서 좋을 그 상황이 돈이 없는데도 주님이 계시므로 기쁜 거고, 이러이러한 prosect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꿈꾸고 있는데, 주님이 계시므로 그 프로젝트와 상관없이 지금 기쁜 겁니다.

왜 자꾸 좋겠음을 꿈꾸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미래에 대한 비전, 목사님들 같으면 교회가 크게 부흥하면 좋겠다, 이 '교회가 부흥하면'이 다 없어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면서 지금 좋아져버리는 겁니다.
부흥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흥하고 나서도 결국 얻는 건 좋은 걸 얻는 것 아닙니까? 좋아야 되잖아요?
바쁘기만 하고 일만 많아지고 골치 아프면 그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게 다 그런 겁니다.
'…좋겠다!' 하고 꿈을 이루고 나면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또 다른 꿈을 가져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영원한 반복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면 '좋겠다'가 곧바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좋겠다'가 이루어졌는데 왜 자꾸 '무엇이 이루어졌으면…'이라는 단서를 미래를 향하여 내던지느냐 이겁니다.
이건 안 믿는 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나다나엘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제자를 부르실 때도 그렇고, 오늘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상황에서도 그렇고, 사도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해나가는 과정 중에 제자들을 부르신다고 하는 이 본문

들은 실지로 공관복음서에서 나오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기록과는 전혀 의도가 다른 겁니다.
제자들을 삼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닌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본 것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혈연관계, 출신과 신분을 결정하는 이 땅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면서 몸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동안 맺었던 모든 관계는 미션이 돼버린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임스본드이지만 조류학자 제임스본드가 007 제임스본드로 바뀌어버리듯이 그렇게 다른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다나엘과의 만남에서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는 얘기는, 무화과나무는 유대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도와 명상의 장소요, 묵상의 장소입니다.
무엇을 묵상합니까? 이 사람이 율법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주로 무엇에 관심을 두고 마음이 꽂혀서 묵상을 하고 기도했는가 하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잘 알고 있던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45절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다나엘이 평소에 관심을 보이고 늘 모든 언어나 마음의 움직임이 모아졌던 대상과 초점은 구약성경을 통하여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도래였던 겁니다, 누구보다도 강렬하게.
이 사람의 관심이 이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기다려왔고 모세가 기록했던 그 2000년 동안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된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실제로는 십자가사건까지 끝남으로써만 메시아를 제대로 만나는 겁니다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부터 시작한 이 서두에 나다나엘과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등장시

키면서 이 나다나엘과 메시아의 만남을 통해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빛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을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일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미래란 무엇입니까?
꿈이 있기에 미래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기에 미래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기에 미래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소원도 성취될 비전도 꿈도 없다면 우리의 미래는 지옥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미래를 향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선민들은 자기의 미래를 하나님의 약속에서 찾았습니다, 물론 그 약속에 대한 이해가 변질되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에서 미래를 찾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왕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미래에서 찾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에서, 내 욕망 속에서 미래를 찾습니다.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러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삶의 방식은 똑같은 거예요.
미래가 의미가 있는 것은 이루어져야 될 소원과 비전과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네 위로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나다나엘아, 이제 너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얘깁니다.
꿈꿀 미래가 없다는 얘깁니다, 비전을 갖고 나가야 될 미래가 없다는 얘깁니다.
이제는 시선을 이 역사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앞을 내다보지 말고 위를 보라는 얘깁니다.
천국을 보라는 얘기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네가 나를 만났다면 내 위에서 열리는 천국을 네 것으로 가지라는 얘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앞을 내다보면서 꿈꾸고 소원하고 비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시선의 각도를 90도로 꺾어서 위를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시선의 꺾임이라는 얘기에요.

위를 보면서 위로부터 오는 기쁨과 위로부터 오는 좋음 안에서 살라는 얘깁니다.
혁명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오늘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나다나엘과 예수님이 만나는 것 같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류 전체가 미래를 향하여 살아왔고 또, 지금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원을 갖고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그러면서 '꿈이 없는 개인이나 단체나 나라는 망한다, 계속 꿈을 꿔라, 비전을 가져라,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온통 서점이 그런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하는 얘기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꿈은 없어지고 미래는 없어진다.'
이 세상 최고의 꿈들을 다 모아서 다 성취했을 때의 좋음보다 더 좋은 좋음이 더 궁극적인 좋음이 더 영원한 좋음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지금, 여기서 하늘로부터 주어진다는 겁니다.
엄청난 변화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미래가 없어지고 꿈이 없어집니다.
왜? 꿈꿀 필요가 없으니까.
꿈꾸는 이유가 뭡니까? 좋음을 얻기 위해서.
이래 되면 좋겠다, 저래 되면 좋겠다, 좋음을 꿈꾸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최고의 좋음이 궁극적인 좋음이 참 좋음이, 하늘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왜냐하면 주님 위에 하늘이 열려 있으니까, 마음을 온통 드릴 경우에 하늘로부터 좋음이 쏟아져 내려오고, 이 좋음은 이제 이 땅에서 돈이 들어와도 자식이 대학에 들어가도, 어떤 좋음과 연결된 소원과 꿈과 비전들이 이루어진다 해도 더 보탤 수가 없는 그런 궁극적인 좋음이 주님으로부터 내게로 주어진다는 얘깁니다.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고 있는데 왜 꿈을 꿉니까?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왜 비전을 가져요?
주님을 믿는 목사님이 왜 교회가 부흥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을 믿는다면,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배반이에요, 믿으면서 그런다는 건.
여지를 남겨두고 말하자면 아직 안 믿는 거니까 이제 믿으세요.
교회부흥이 되거나 안 되거나 상관없이 여기서 하늘이 열리고, 지금 그 하늘에서 좋음이 내게로 쏟아져 내려오는 믿음의 경험, 복음을 받아들인 경험을 진짜 해보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다나엘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네 마음이 나에게 온통 다 주어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러면 네 마음에는 이제 꿈이 사라지고 미래가 없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꿈이 다 성취되어도 도달할 수 없는 그 좋음이 네 마음속에 주어질 것이니까, 이제 그 좋음을 갖고 이 세상에 미션을 수행하는 제임스본드처럼 나가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미션들을 이루며 살아라!'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나 밖에 있는 자들이나 꿈꾸며 미래를 향해 갔습니다.
결국은 좋음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므로 궁극적인 좋음과 참 좋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미래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흘러나오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좋음을 하늘로부터 받고, 세상을 향해서는 미래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미션을 수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